

Thuy Linh Nguyen Tu, *Experiments in Skin: Race and Beauty in the Shadows of Vietnam*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21), 230 pp.*

민병웅†

피부로 엮어낸 식민주의, 군사주의, 그리고 폭력의 현대사

피부가 역사 서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누군가는 굳이 몸이 아닌 피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누군가는 피부를 피부 색의 문제와 꾸밈의 문제를 다룰 때 논의할 수 있는 소재 정도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피부학(skin studies) 연구자들은 피부를 통해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나 말하지 못하는 과거의 흔적, 고통,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이야기한다. 피부를 통해 느끼는 감각과 피부를 보여주는 방식, 피부를 특정한 시각과 촉감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들은 피부를 이루고 있는 육체적 특징들과 물질들의 역할과 이에 얽힌 논의들에 폭넓게 주목한다.¹

이러한 피부학의 관점을 과학기술사, 의료사 분야에 적용한 연구가 2021년

* 원고 검토 과정에서 좋은 의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종식·최형섭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woongzwoongc@gmail.com

¹ 피부학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는 아래의 글들을 참고할 수 있다. Marc Lafrance, “Skin Studies: Past, Present and Future,” *Body & Society* 24:1-2 (2018), 3-32; David Howes, “The Skinscape: Reflection on the Dermatological Turn,” *Body & Society* 24:1-2 (2018), 225-239; Sara Ahmed and Jackie Stacey eds., *Thinking Through the Skin* (London: Routledge, 2001). 과학기술사 분야에서는 2023년 결성된 하버드 대학교 레드클리프 연구소의 “피부 생태학 네트워크(Skin Ecologies Network)”의 활동을 참고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할 것. Skin Ecologies Network, <https://sites.harvard.edu/ecologies-of-skins/about-2/> (접속일: 2025. 4. 17.).

출간되었다. 인류학자 투이 린 응우옌 투(Thuy Linh Nguyen Tu)의 두 번째 책인 『피부 실험: 베트남의 그림자가 드리운 인종과 미(*Experiments in Skin: Race and Beauty in the Shadows of Vietnam*)』는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피부 관리업소인 칼릭스(Calyx)에서 참여 관찰한 내용을 20세기 중반 미군과 피부 과학자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피부 실험의 역사를 통해 이해한 결과물이다. 저자는 미국 국립 아카이브(U.S. National Archives)의 스틸 사진 컬렉션(Still Pictures Collections) “동남아시아에서의 군의 활동과 군·민(軍民)의 삶, 1965-1982”의 사진 자료와 필라델피아의 홈스버그 감옥 실험 자료 등을 활용해 베트남 전쟁기 베트남인과 미군이 피부로 느낀 고통, 이런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흑인 수감자에게 실행된 인종주의적이고 군사주의적인 실험의 역사를 폭로한다. 나아가 이런 실험과 전쟁의 기록을 담아내고 아카이브를 구축한 권력의 식민주의적 전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된 여러 화학무기는 베트남 땅에 있었던 군인, 거주자, 식생 등을 전방위적으로 파괴했다. 특히 고엽제 제품 중 하나로 다우 케미컬(Dow Chemical)사에서 개발한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ge)는 심각한 피부 질환을 유발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이 피부 질환에 시달리자, 미군은 원인 파악을 위한 피부 과학 연구를 수행했다. 이 과정은 피부 미백이나 노화 개선 등 화장품 기술이 개발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전쟁과 인종주의로 인해 탄생한 피부 과학 지식과 이에 기반한 제품들은 오늘날 베트남은 물론 전 세계에서 미용을 위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의 역사와 고통을 화장품의 개발과 연상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듯하다. 고통스럽고 흉측한 상처와 트라우마가 아름다움을 좇는 산업의 밑거름이 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책의 저자 투는 식민주의와 자본주의, 전쟁, 과학과 미용의 역사 등의 복잡한 실타래를 풀기 위해 이와 연루된 자들의 피부에 주목한다. 구미의 역사에서 피부는 인체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경계로 이해되거나, 개인을 읽어내는 창으로 이해되었다. 그에 반해 피부학 연구자들은 이런 접근과 거리를 두면서 피부 자체가 다양한 감각이 교차하는 지점임에 주목해왔다.² 저자는 이런 피부학 연구자들의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피부를 역사학적 분석의 대상이자 하나의 사료로 재개념화한다. 단순히 피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적하는

² Steven Connor, *The Book of Ski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것을 넘어 개인과 집단이 피부를 통해 공유하는 경험과 피부를 매개로 어떤 고통과 안정을 느끼는지까지 쫓아가려는 것이다.

저자는 피부를 지식, 상품, 사람이 태평양을 가로질러 관계를 구축하는 “연결된 조직(connective tissue)”으로 정의한다. 피부를 단순한 메타포나 육체의 일부, 자아와 타자를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집단적 비늘의 기록물(record of our collective imbrication)”로 보겠다는 의미이다(9).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피부를 매개로 특정 집단이 공유하는 기억이 있으며, 피부에 남겨진 상처나 피부로 느낀 고통의 경험 등을 하나의 기록물로서 해석할 자료로 보겠다는 것이다.

저자는 피부가 담고 있는 기억이 있으며, 그 기억에 기반한 “피부 이야기(skin stories)”를 들으며 식민주의, 자본주의, 인종주의, 군사주의, 폭력과 같은 현대사의 거시적인 주제들을 건드린다(27). 책의 첫 장과 마지막 장에는 참여 관찰을 통한 오늘날 베트남인들의 피부에 대한 이야기를, 책의 중간부(2-4장)에는 20세기 미국 피부 과학의 역사를 담은 책의 구성은 현대 사회의 모순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를 엿보게 해준다.

이 책의 1장과 5장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피부 관리업소인 칼릭스에서 참여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이곳에서 일하는 피부 관리사와 이곳에 방문하는 고객이 어떻게 고엽제 피해의 후유증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자기 피부를 이해하는지 살핀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1980년대 후반이 되면서 베트남은 도이머이(dổi mới)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 국가와 교류를 확대하기 시작했다.³ 이때부터 구미의 화장품들이 베트남 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했고 피부 관리업소에서도 이러한 화장품들은 고객들의 피부 관리를 위해 활용된다. 저자에 따르면 도이머이 정책은 여성의 미, 깨끗한 몸, 깨끗한 도시 외관이 자본의 축적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란 관념 속에서 성매매 산업이나 에스테틱 산업의 성장까지도 촉진했다.

저자는 칼릭스에 방문하는 손님들을 피부과에 내원할 경제력이 없는 중간 계

3 도이머이란 직역하면 “새롭게 바꾼다”는 뜻으로 1986년 6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나온 시장주의 경제 체제의 도입을 표명한 슬로건이다. 이를 계기로 1988년부터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거나, 국영기업 중심의 경제를 개편하기 위해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 민간기업의 설립 완화 등을 추진하였다. 베트남의 경제정책에 대한 개괄은 다음을 참고할 것. 이한우, “베트남은 동아시아 발전국가를 따르는가?: 30년 개혁과정의 ‘발전 모델’ 고찰”, 『동남아시아연구』 26:3 (2016), 51-90.

층 여성으로 대부분 에이전트 오렌지에 노출된 느린 폭력(slow violence)의 피해자들이라고 소개한다. 이에 따르면 칼릭스는 의학 지식과 미신, 피부 상태에 대한 정서적, 육체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저자는 여기서 구성되는 피부에 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저자가 보기에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손님들은 피부에 대한 독특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 칼릭스에서 일하는 피부 관리사들은 손님의 피부가 고열제에 의한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피부 질환의 원인을 전쟁으로만 돌리지 않고, 유령에 의한 것, 빈곤이 지속되면서 생긴 문제로 이해한다. 저자의 관찰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특징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피부란 외관상 아름다운 피부가 아니라 강한 피부를 의미한다는 것이었다. 후술하겠지만, 저자는 강한 피부에 대한 피부 관리사와 칼릭스 방문객들의 열망을 전쟁과 식민주의가 만들어 낸 상처에 대한 베트남 여성들의 저항이자 생존 투쟁으로 이해한다.

투가 포착하는 피부 관리사와 손님들의 피부에 관한 생각과 이들이 전하는 피부에 관한 이야기는 피부 과학의 역사적 서사와 합쳐지면서 완성된다. 책의 중간부(2-4장)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이루어진 피부 과학 연구들에 주목한다. 특히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와 다우 케미컬, 미국의 피부 과학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피부염에 관한 독성 시험, 베트남 전쟁에서 발생한 각종 피부 질환에 관한 연구들이 어떻게 지속되었는지 살핀다. 이를 통해 미국의 피부 과학자들의 피부 과학 연구 프로젝트에 주목해 이런 연구가 어떻게 흑인과 백인, 베트남인과 미국인의 피부를 생물학적으로 다른 것으로 상정하는지 살핀다. 이를 위해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필라델피아 홈스버그 감옥에서 흑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피부염에 관한 실험(2장),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군사 피부 과학 연구 프로그램(Military Dermatology Research Program) 사례(3장), 미 군의학 사령부에서 구성한 피부 과학 현장 연구팀(Field Dermatology Research Team)의 베트남 현장 파견을 통한 피부 질환의 원인 규명에 대한 연구(4장)이다. 세 사례에 주목하면서 저자는 18세기 유럽에서 이어져 왔던 흑인, 비서구인의 피부에 대한 인종주의적 선입견이 피부 과학 연구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었음을 드러낸다.

2장은 홈스버그 감옥 수감자를 대상으로 1951년부터 1974년까지 연구를 수행한 앨버트 클리그만(Albert Kligman)의 실험에 주목한다. 저자는 클리그만이 18세기 이래로 지속된 흑인의 피부가 더 두꺼운 표피를 가지고 있어 고통을 덜

느끼고, 염증에 더 강한 특징을 띠 것이라는 인종주의적 선입견이 그대로 클리그만의 사고에 전제되어 있었음을 지적한다. 여기서 저자가 클리그만의 사례를 중시하는 까닭은 클리그만이 이러한 인종주의적 선입견을 토대로 얻은 과학적 지식을 상업화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클리그만이 흑인 피부의 특징을 백인 피부에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발상을 최초로 한 피부 과학자라는 점에 주목한다. 흑인의 피부와 유사한 생물학적 특성, 강인한 피부를 만들어내기 위한 의학적 개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레틴-A(Retin-A)를 만들어 상업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백인의 연약한 피부 대 비백인의 강인한 피부라는 구도를 유지하면서 베트남 전쟁기 발생한 피부 질환에 관한 연구에 주목한다. 3장은 1964년부터 마리온 쉴즈버거(Marion Sulzberger)가 주도한 베트남 참전 군인의 피부 질환에 대한 분석이 열대 지역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백인 피부를 보호하고, 그들의 피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만들어 냈음을 보인다. 저자는 당시 미국 의학계가 제국주의 열대 의학의 영향을 받아 상정한 백인에게 위협이 되는 “열대”라는 관념을 베트남이라는 공간을 이해하는 틀로 여겼다고 본다. 여기서 쉴즈버거가 독특한 점은 화학 물질 살포 등 과학기술적 개입을 통해 열대 공간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백인들이 열대 지역에서 견딜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4장은 알프레드 앨런(Alfred M. Allen)이 이끈 베트남 파견 연구팀의 피부 과학 연구를 이들이 작성한 연구 논문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포착한다. 특히 이들이 어떻게 베트남인과 흑인을 열대 여드름(tropical acne)에 면역이 있는 존재로, 동시에 백인들은 열대 여드름에 취약한 집단으로 구분하는지 추적한다. 이 장에서 중요한 점은 저자가 과학자의 연구 결과물에서 인종 범주가 나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넘어, 수집한 사료 가운데 당시 연구팀이 촬영한 사진에서 보이는 베트남인과 백인 사이의 감정 차이 등을 포착해 내려고 했다는 점에 있다. 앨런 연구팀이 수집한 데이터 내에서의 인종적 편향과 인종주의적 해석이 드러나는 방식을 보이면서, 저자는 베트남 전쟁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피부에 대한 경험이 당시 엘리트 피부 과학자와 연구팀에 의해 구성되는 방식과 이러한 해석을 기록으로 남기는 권력의 힘을 보여준다.

이처럼 미국 피부 과학사에 내재한 인종주의, 식민주의, 폭력의 역사를 드러낸 뒤, 저자는 5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피부 과학 지식과 제품, 피부에 대한 관

념이 어떻게 베트남 여성들의 피부 관리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지 분석한다. 피부 관리는 서양 피부 과학 지식을 토대로 이루어지더라도 피부 관리사와 손님 모두 피부 과학 지식과 방법이 고엽제 피해를 치료해 줄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저자의 관찰은 이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자신의 고통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낙관을 포기한 “자포자기(resigned)”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피부 관리업소는 희망과 회복의 공간은 아니지만, 고엽제로 파괴된 지역, 오염 물질로부터의 도피와 이에 대한 망각의 공간으로 기능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칼릭스에서 일하는 피부 관리사들이 강인한 피부의 이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피부 관리사들이 서양 과학에 근거해 고엽제 피해자들의 피부를 강인하게 만들려 한다는 점에서 이 책의 중반에 서술된 피부 과학자들이 지향했던 피부의 이상적인 모습과 공명하는 지점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베트남 여성들은 전쟁과 화학 물질에 의한 오염 속에서 살아가려는 방법으로 강인한 피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피부 과학자들이 피부를 이해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저자는 피부를 강인하게 만들려는 칼릭스에 있는 여성들의 노력을 서구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삶을 계속 살아갈 생명력을 만드는 행위로 해석한다. 베트남 여성들은 강인한 피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 속에서 노동, 삶에 대한 이야기, 슬픔, 기쁨 등의 정서를 경험한다. 저자가 볼 때 이러한 정서적 경험은 현실의 고된 노동과 오염 물질로 가득한 세상을 잠시라도 망각하려는 시도이다. 칼릭스에서 공유되는 정서적 교류는 피부 질환이나 피부 문제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 타인의 피부를 연구의 대상으로 객체화하기만 했던 과학자들의 모습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에서, 저자는 칼릭스에 있는 여성들의 피부 이야기가 과학자들의 피부 이야기보다 더욱 가치 있다고 본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저자가 한 명의 인류학자 혹은 역사가로서 여러 사람의 피부에 관한 기억과 서사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자는 칼릭스 여성의 모습과 과거 피부 과학 연구의 지식사를 넘나들며 피부에 새겨진 트라우마와 이를 전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속에 은폐된 느린 폭력을 직시하자는 또 하나의 피부에 관한 서사를 구축한다. 이런 의미에서 저자는 과거의 정의롭지 않은 피부 과학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실의 발견자를 넘어 자신만의 피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발화자이다. 역사가자 혹은 인류학자로서 아카이브와 사진, 그리고 피부 관리 현장 속에 흩어진 피부의 기록을 수집해 저

자가 풀어내는 피부에 관한 이야기는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오늘날의 미용 산업과 자본주의와 폭력성의 분리 불가능한 역사성을 성찰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피부를 통해 미국과 베트남의 현대사를 이해하려는 저자의 흥미로운 시도와는 별개로, 저자의 분석에 아쉬운 내용이 없지는 않다. 우선 저자는 피부 과학자들이 인종 개념을 사용하는 방식을 다루지만, 이러한 개념을 생물학적 차이에만 국한된 것으로 이해하는 면이 있다. 2차 대전 이후 인종 개념에 대한 과학계, 사회과학계의 재검토에 의해 인종이 생물학적, 사회문화적인 의미가 혼재된 채 사용되어온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부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인종 개념은 당대 인종 과학의 지적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칼릭스에서 일하는 피부 관리사들의 몸에 대한 이해가 다소 추상적으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베트남의 유령에 대한 믿음이나 몸에 대한 전체론적 사고방식이 칼릭스 내에서의 피부 관리 실천에 영향을 주는 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도 설명하고 있듯이 피부 관리는 서구 과학과 베트남인들이 공유하는 토속적 믿음, 전쟁과 빈곤에 대한 자포자기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설명하기보다는 이러한 요소들이 병렬한 채 서술을 마무리한다. 칼릭스를 비롯해 비서구 지역의 피부 관리사, 피부과 의사, 화장품 판매자 등의 피부 이야기가 더욱 연구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하지만 투가 피부에 아로새겨진 이야기들을 통해 과학사와 현대 사회의 모순적인 접점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찰을 제공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지적은 모든 내용을 한 권의 책에서 다룰 수 없는 데서 비롯한 사소한 문제에 불과할 것이다. 독자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피부에 담긴 이야기들을 만 들어낸 힘의 작동에 주목하고 그와 동시에 이런 힘들이 배제한 또 다른 이야기를 되살리려 방법을 끝없이 모색하는 저자의 태도일 것이다. 특히 베트남 전쟁사가 남긴 고엽제 피해의 역사를 피부 과학의 역사로 풀어낸 저자의 시도는 아직까지 과학기술사·의료사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이지 않은 피부 과학이라는 분야를 현대사의 중요 주제인 냉전과 연결시킨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해도 손색이 없다.

지금도 올리브영과 같은 화장품 가게에 들어서면, 클리그만이 연구한 비타민 A의 성질을 토대로 화장품에 적용된 레티놀과 같은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어렵

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기미 제거를 위해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베타메타손 등의 효과적인 배합을 의미하는 클리그만 처방(Kligman formula)은 이를 적용한 멜라논 크림이라는 제품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투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비단 미국과 베트남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한국이 베트남 전쟁과 깊게 연루되어 있고 오늘날 한국의 화장품과 피부과 산업이 동남아 국가들과 맺는 관계가 적지 않은 만큼, 미용을 둘러싼 실천들이 은폐하거나 배제하는 힘들에 대한 폭넓은 고민이 필요하다.